

보고서

일본수출규제 관련
기업 피해실태조사 보고서

2019. 8



I. 조사의 개요

1. 조사목적 및 활용방법

- 일본의 반도체/디스플레이 소재 3개품목 수출규제(2019.7.4.) 이후 추가 제재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제외 조치(2019.8.2.)가 결정됨에 따라 경기 남부지역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수출규제와 관련된 피해실태를 조사하고,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통계조사로 활용코자 함.

2. 조사기간

- 기초자료조사 : 2019. 8. 9 - 8. 16.
- 자료정리 및 통계분석 : 8. 16 - 8. 20.
- 보고서 작성 : 8. 21.

3. 조사대상

- 경기남부지역 제조기업

4. 조사방법

- FAX 및 방문조사

II. 조사결과

1. 조사결과 종합

경기남부지역 51개 기업이 응답한 이번 조사 결과,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기업은 6%,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기업은 64%, 현재까지 피해가 없다는 기업은 30%로 조사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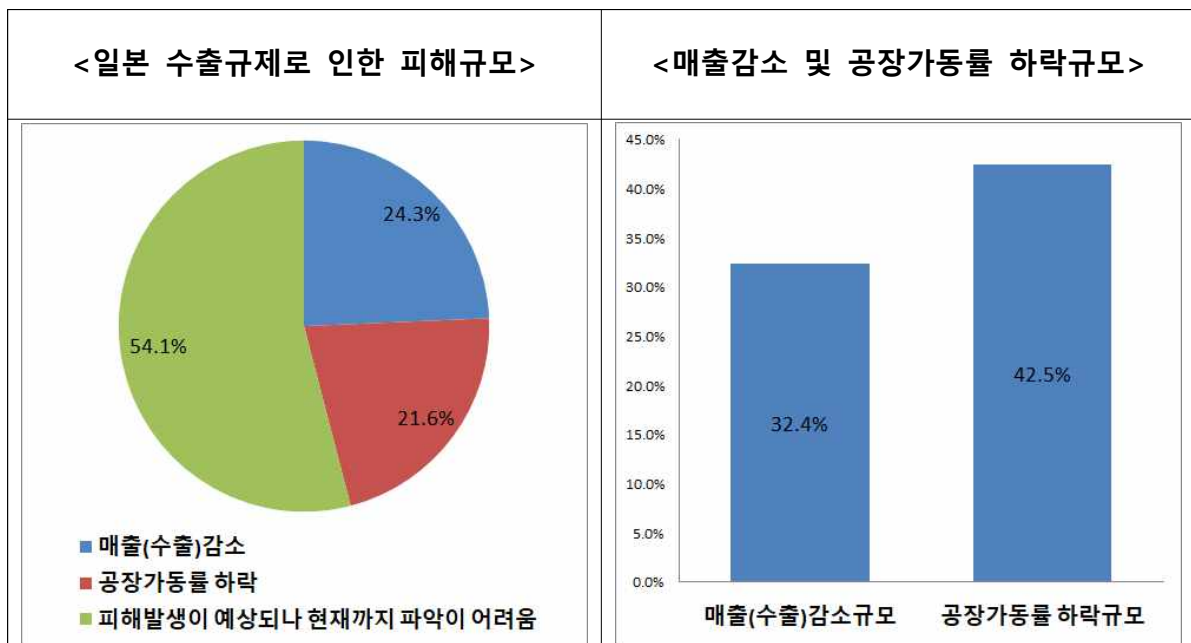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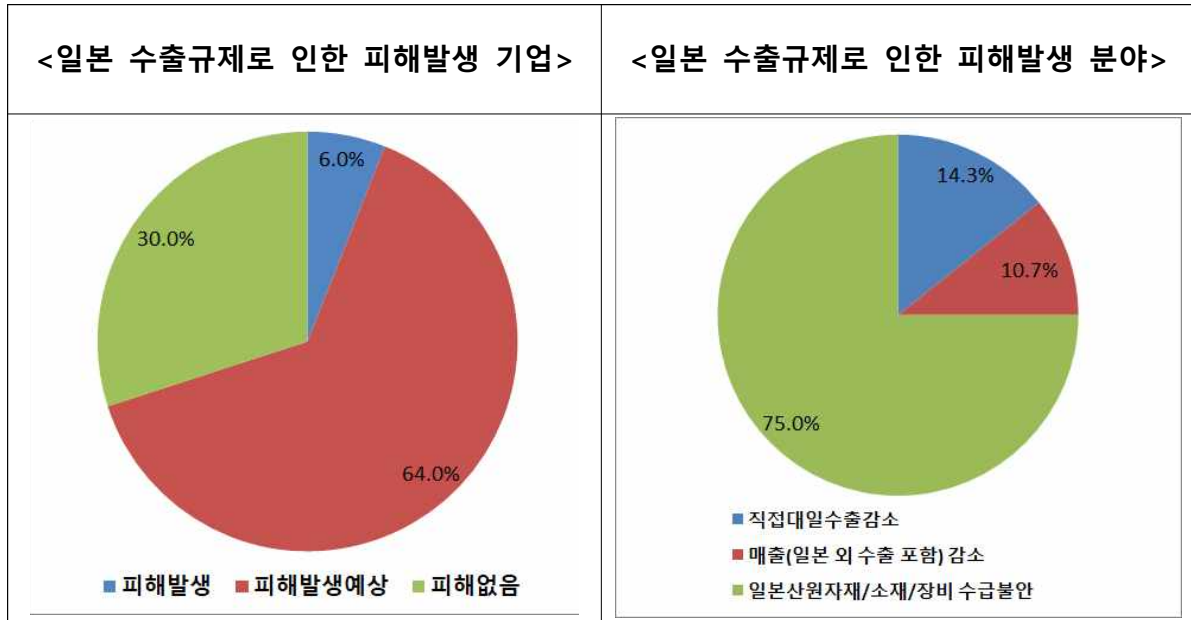
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의 피해발생 분야는 직접 대일수출의 감소가 14.3%, 매출 감소 및 일본외 수출 감소가 10.7%, 일본산 원재료/소재/장비의 수급불안이 75%로 나타났다. 이는 관내 중소기업은 이번 수출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대일 수출이나 매출 등의 감소보다는, 일본산 주요 핵심품목의 수급 및 일본산 주요 생산설비/부품의 수급 등의 생산성 분야에 더 큰 타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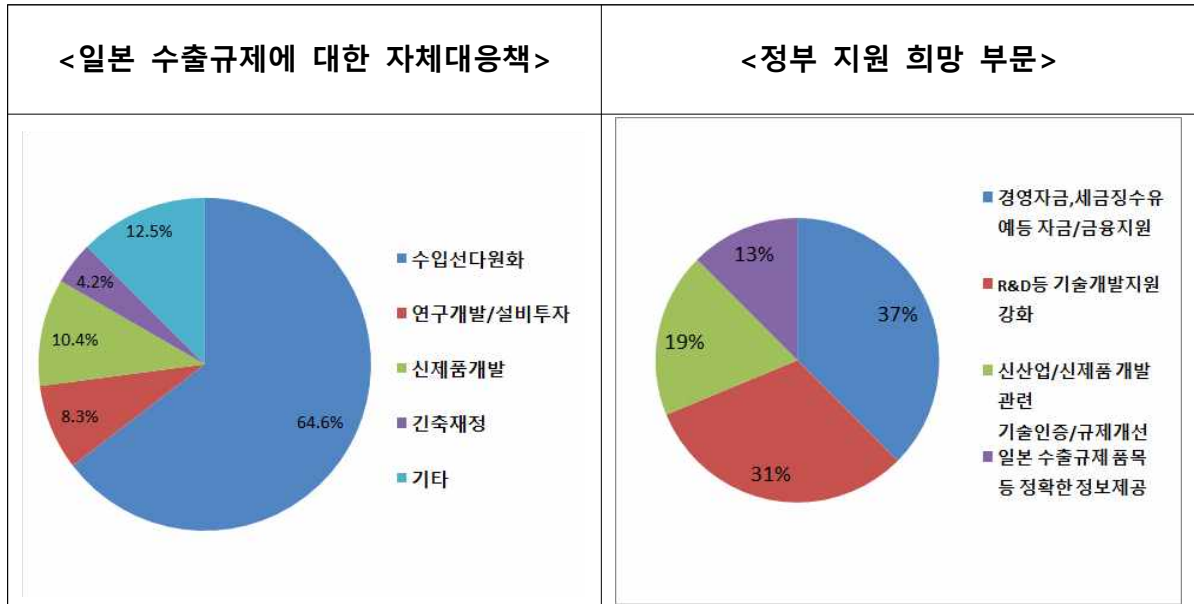
피해 규모는 24.3%의 기업이 매출이 감소되었다고 응답했으며 매출감소 규모는 평균 32.4%로 조사됐다. 또한 21.6%의 기업이 공장가동율이 감소되었다고 응답했으며, 공장가동률이 평균 42.5% 하락했다고 응답했다. 한편 피해발생이 예상되나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기업도 54%로 조사되어, 이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의 피해사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.

이번 수출규제에 대한 기업 자체 대응방안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수입선 다원화(61.4%)를 통해 이번 사태를 대응해 나갈것이라 응답했으며, 신제품 개발(10.4%),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(8.3%)가 그 뒤를 이었다.

중소기업들은 이번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지원해 줘야 할 부분으로 경영자금 지원, 세금징수 유예 등 자금/금융지원이라 답한 기업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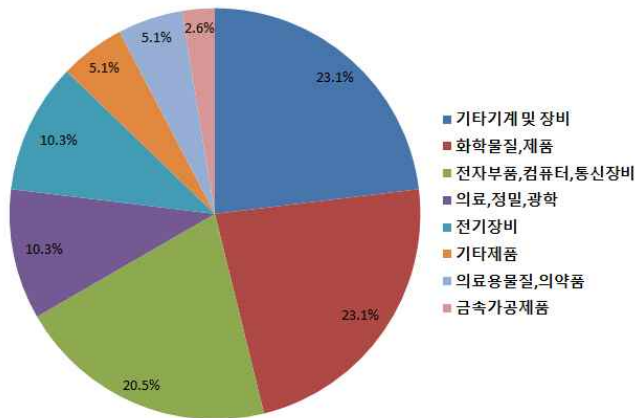
37.8%, R&D등 기술개발 지원강화가 31.3%, 신산업/신제품 개발 관련 기술인증/규제 개선이 18.8%, 정확한 일본수출규제 품목등의 정보제공이 12.5%로 나타났다.





2. 업종별 피해 실태

가. 업종별 피해 여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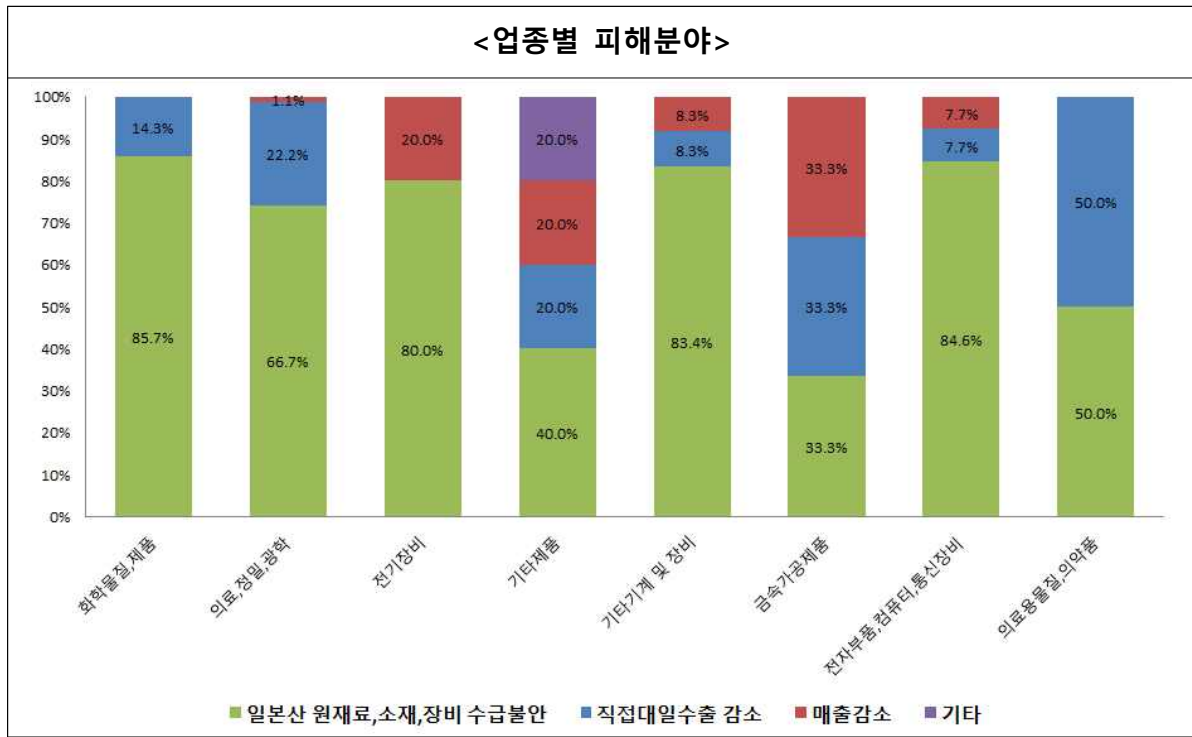
○ 응답기업 중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거나, 피해발생이 예상된다고 응답한 기업 중 피해가 가장 높은 업종은 반도체 장비가 속한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과 화학물질/제품 제조업이 23.1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

전자부품, 컴퓨터, 통신장비 제조업이 20.5%로 조사되었다.

○ 또한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 기업이 각각 10.3%로 조사되었으며,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, 기타제품 제조업에서도 5.1%의 기업이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나. 업종별 피해 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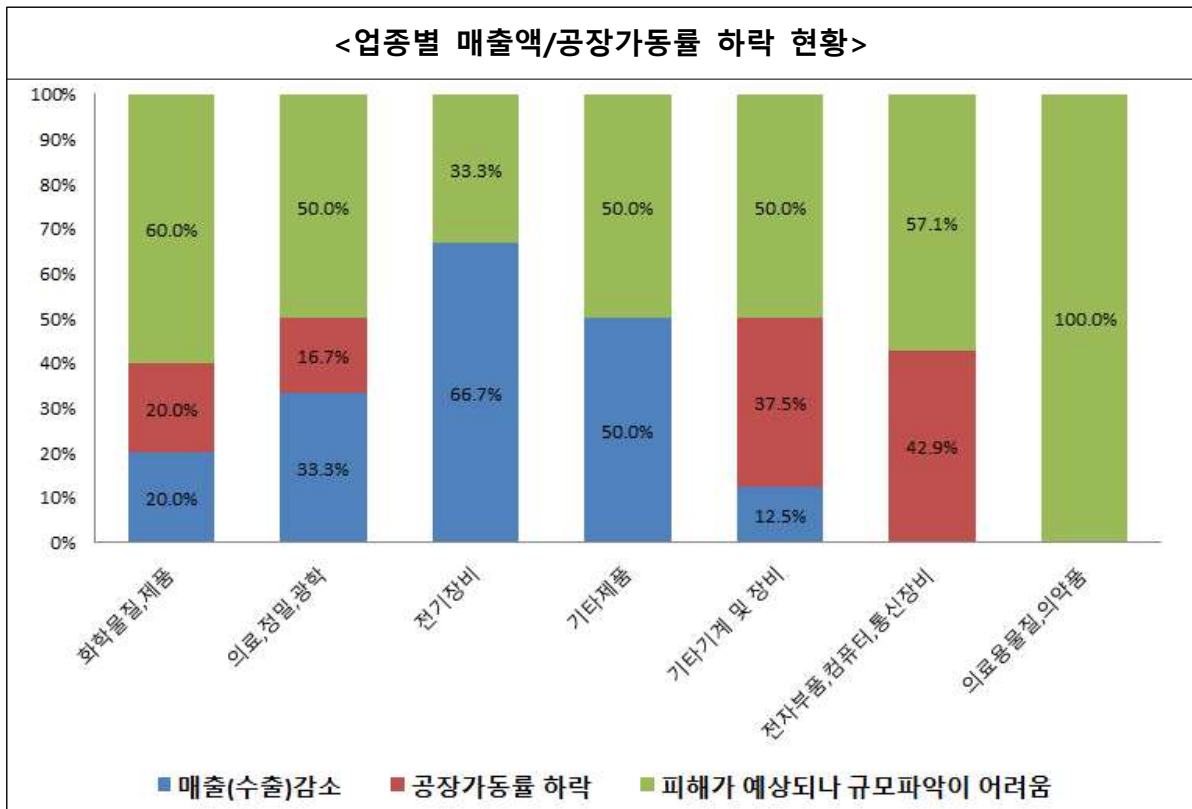
○ 업종별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분야는 일본산 원자재/부품/장비의 수급 불안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특히 전자부품, 컴퓨터, 통신장비 제조업과 반도체 장비가 속한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서 일본산 원자재/부품/소재의 수급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. 그 외 화학물질, 제품 제조업과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제조업에서도 일본산 원자재/부품/소재의 수급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했다.



다. 업종별 피해 규모

○ 업종별로 매출 감소 규모와 공장가동률 하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통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나 아직 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.

- 매출(수출)감소 및 공장가동을 하락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을 기준으로 세부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매출(수출)감소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업종은 전기장비 제조업(66.7%)이고, 전자부품,컴퓨터,통신장비 제조업은 공장가동을 하락 비중이 가장 높은 것(42.9%)으로 나타났다.



- 세부업종별 매출(수출)감소 및 공장가동률 하락 규모는 각 업체별 편차가 매우 크고, 아직 그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어 통계적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. 단, 개별 기업의 경우 각 기업의 주요 매출처 및 사업구조에 따라 공장가동률 100% 하락 또는 매출액 80%, 50% 감소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